

1/18(월) 사사기 묵상 40

사사기 13:15-25

삼손(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보내셨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로서 마노아 부부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서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마노아 부부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신들을 방문한 귀한 손님처럼 염소 새끼를 대접하길 원했습니다. 염소는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소중한 재산이었고 이러한 후대는 당시 귀한 손님에 대한 전통이기도 했습니다(창 18장, 아브라함의 예). 그러나, 마노아는 갑자기 손님에게 대접하려 했던 짐승을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19절). 이처럼 마노아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대답 때문이었습니다(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이 아니라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는 말을 듣고 마노아는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대리자였습니다. 이때 마노아는 그의 정체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마노아의 표현을 보면 그를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소개합니다. 기묘자는 원어적으로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이는 인간 선지자나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놀라운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또다른 이적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단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 부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성경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의 출생에 있어 마노아 부부에게 있어 왜 이처럼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마노아 아내의 대답에서 유추하게 됩니다(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삼손에 대한 나실인으로서의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기묘자'는 이사야 9: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사 9:6,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런 이유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구약 시대에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다니엘 등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거나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직접 찾아와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드물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과는 달리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신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의 정권 이양이 평화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새로운 차기 정부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각 구역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맡은 구역자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역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기대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